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11’  
10대, 20대 여성들이 생리통을 참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 로 변경” 공약 발표**

- ‘산부인과는 임신 출산 위한 곳’ ‘이상한 눈초리 때문에’ 청소년·미혼 여성 기피
- ‘여성건강의학과’ 로 바꿔 여성 누구나 생애주기에 맞게 적정진료 받을 수 있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1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10대와 미혼을 포함한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 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소확행 공약은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정책, 오랜 사회적 문제였으나 해결이 요원했던 정책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내놓고 있다.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여성 누구라도 생애주기에 따라 생리통, 생리불순, 생식기 질환, 폐경 질환 등이 생기거나 자궁경부암과 같은 예방접종이 필요할 때 참지 않고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부인과’ 라는 명칭으로 인해 10~20대 여성들이 임신부와 기혼 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진료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성인 미혼 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응답했다. 또 성인 미혼 여성의 81.7%, 청소년의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보다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성인 미혼 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다 보니 여성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 중에는 월경불순이나 생리통

등 건강 질환이 생겨도 진통제로 버티는 경우도 많다” 며, 여성 생식 건강 질환을 부인 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이 병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진료과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과거에도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꾼 전례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 혼인과 출산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현장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자 : 세바정 이현주(010-9093-3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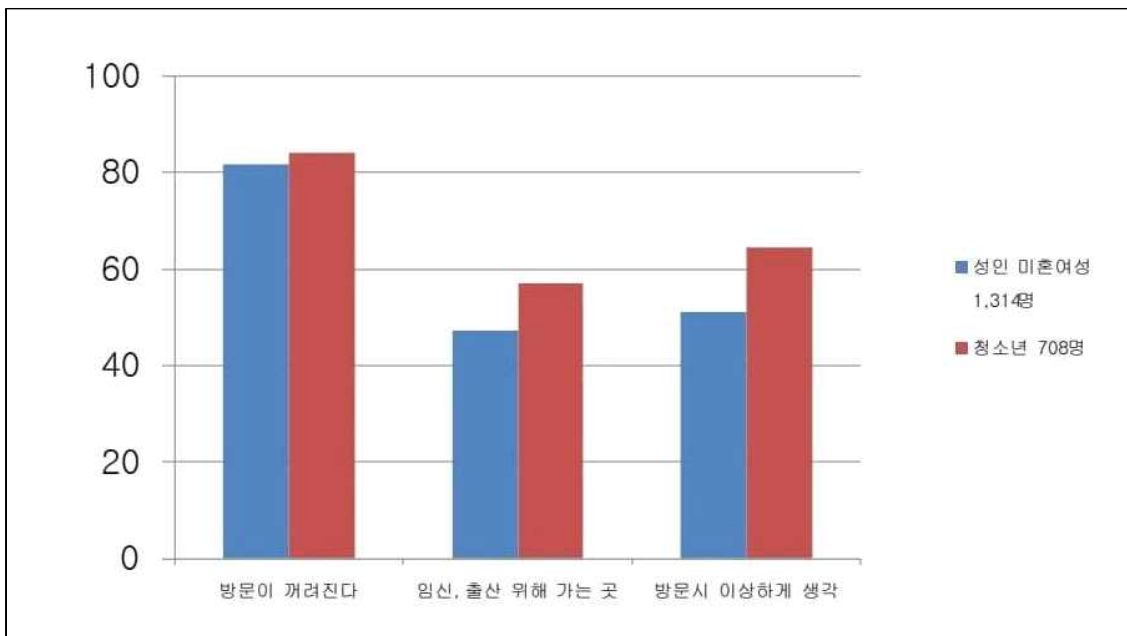
정책본부 정책분석팀 한혜경팀장(010-7764-4694)

참고자료

○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 (2014), 미혼 여성 1,314명 청소년 708명 조사

-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보다 방문하기가 꺼려진다“  
미혼 여성 81.7%, 청소년 84%
- “산부인과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성인 미혼 여성 51.1%, 청소년 64.4%
-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 “  
성인 미혼 여성 47.4%, 청소년 57.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20대 자궁경부암 환자 증가율(2014년~2018년)  
2014년 2,041명 → 2018년 3,370명 **65% 증가**

○ <질병관리본부 자료> 만12세 여성청소년 예방접종 무료 제공 사업

- 2006 ~ 2007년 출생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1차 접종율 **49.5%**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20대 여성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인식 조사 결과(353명)  
- 무료검진 인지 36.5% / 수검의도 없다 44.5%

○ <질병관리본부 자료> 자궁내막증 환자 증가율 (2013년~2017년)  
- 2013년 84,583명 → 2017년 111,214명 **31% 증가**  
(20대 ~ 40대 여성 90%)

○ <진료과목 명칭 변경 사례>

- 2002년 마취과 →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 → 진단검사의학과
- 2006년 진단방사선과 → 영상의학과
- 2007년 소아과 → 소아청소년과
- 2011년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